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5.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 (No. 450)

미 주

○ 美,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테러 혐의로 첫 기소

- 4.24 언론은 美 법무부가 '트렌 데 아라과' 고위 간부를 테러혐의(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공모)로 기소했으며, 美 당국이 외국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갱단에 대해 테러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보도

※ 美는 지난 2월 트렌 데 아라과를 비롯한 다양한 마약 카르텔과 더불어 초국가적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

○ 파라과이, 이란 경비대 테러단체 지정

- 4.25 언론은 파라과이 정부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(IRGC)를 쉰 세계적인 인권 침해와 테러 활동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단체로 규정하고 '테러단체'로 지정했다고 보도

※ 또한, 파라과이 「산티아고 페냐」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마스와 헤즈볼라 군사 조직에 한정하여 지정한 테러단체 범위를 정치 및 사회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부언

유럽

○ 英, 특수부대원들 신원정보 10년간 노출

- 4.28 언론은 영국 현직 특수부대원 20여명의 이름과 계급, 특수부대 및 담당 작전을 지칭하는 코드명이 담긴 문건이 온라인상에 노출되자, 해당 사실을 국방부에 알렸으며 몇시간 후 문건이 삭제되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해당 코드명이 軍 내부에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적성국이나 테러 단체도 해당 군인의 부대와 직책(역할)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정보라고 부언

아 테

○ 韓 국무총리, 인도 카슈미르지역 테러 관련 위로전 발송

- 4.24 언론은 한국 국무총리가 인도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인도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전하는 한편, 인도가 同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국경 폐쇄 등 조치를 발표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

※ 인도가 '65년·'71년 양국간 벌어진 전쟁에도 유지된 '인더스강 조약(강 공동 사용)' 중단과 함께 파키스탄인들의 특별 비자를 취소해 48시간 內 출국하도록 명령했다고 부언

○ 필리핀, 현직 시장 선거 유세 中 총격으로 사망

- 4.26 언론은 조엘 루마 시장이 선거 유세장 인근에 은거하고 있던 저격수의 총격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내달 선거 종료까지 정치적 이념 대립 및 추가 강력범죄 발생 등 필리핀 치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

※ 현지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총격으로 2명의 시장이 사망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도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판단 후 용의자 추적중이라고 부언

중 동

○ 이슬람 군사연합, AI 기술로 인한 진화된 테러 위협 증가 우려

- 4.24 이슬람 군사 대테러 연합은 테러조직이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온라인상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회 불안 초래 등 위협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, 국가간 협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

아프리카

○ 서아프리카 니제르, 테러단체 공격으로 정부군 12명 사망

- 4.27 언론은 서아프리카 니제르 국경지대에서 정부군 12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전하는 한편, 말리·부르키나파소와 경계를 닿고 있는 이 지역이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활동 중심지가 되어왔다고 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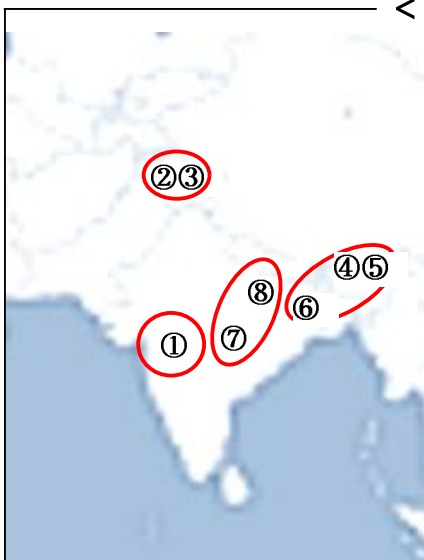
※ 알카에다 및 ISIS 연계 단체들이 활동하며 민간인·정부군 상대로 공격중이라고 부언

NDFB¹⁾, 인도 아삼주 민간인 대상 총격 테러

- '14. 5.1 ~ 3 인도 아삼주 민간인 거주 지역에 NDFB 소속 무장대원 3명이 급습, 최소 30여 명의 사망자(여성 및 어린이 포함) 발생
 - 이들은 인도 총선에서 '벙골계 무슬림 주민들이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않은 것 같다'며 소총(AK-47)으로 민간인들을 공격
- 사건 後 인도군과 준군사조직이 투입되어 NDFB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, 인도 내무부는 NDFB의 소수 민족 대상 추가 파벌 계획을 식별
 -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에서는 NDFB를 공식 테러 단체로 규정하였으며, 현재까지도 NDFB 지도자 체포 및 무장대원 소탕 작전을 진행 중
- 전문가들은 해당 단체가 취약 시기(인도 총선, '14. 4~5월) 공격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만(독립 국가 수립) 표출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
 - ⇒ 국가 내부 취약 시기(조기 대선)에 정부에 대한 불만, 민족 갈등 등의 우발상황을 고려하여 대테러 정책·예방활동 제반사항 검토 필요

테러 단체

< 인도 내 활동 테러단체 >



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

- ① LeT, 라슈카르-에-타이바(카슈미르 독립)
- ② Jem, 자이시-에-무함마드(파키스탄 편입 또는 분리)
- ③ IM, 인디언 무자히딘(이슬람 극단주의 확대)

■ 분리주의 및 민족주의 단체

- ④ ULFA, 통합 아삼 해방전선(아삼주 독립)
- ⑤ NDFB, 보도랜드 민족민주전선(보도랜드 수립)
- ⑥ KLO, 캄타푸르 해방기구(캄타푸르 독립국 수립)

■ 마오주의(극좌) 단체

- ⑦ CPI, 인도공산당(마오주의 이념에 따라 인민전쟁 추구)
- ⑧ MCC, 마오이스트 공산주의 센터(카스트제도 반대)

1) NDFB(National Democratic Front of Bodoland, 보도랜드 민족민주전선) : 1986년 보도 보안군으로 시작하여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활동하며 분리주의 및 독립 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반군단체